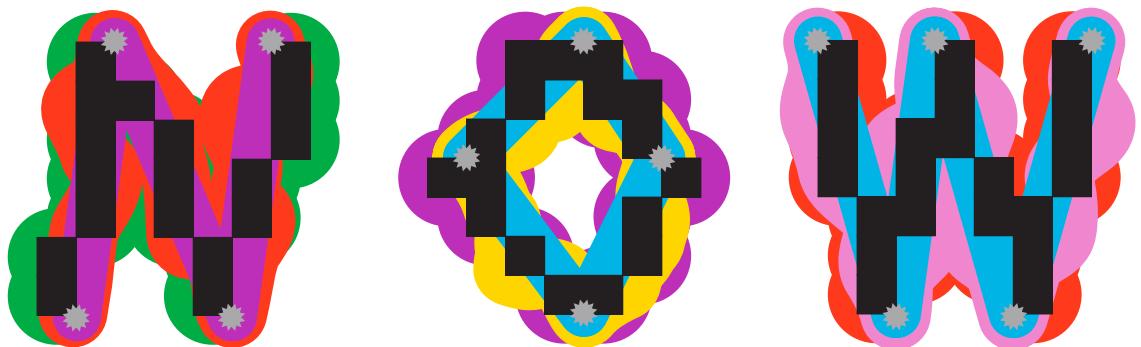


THE
HYUNDAI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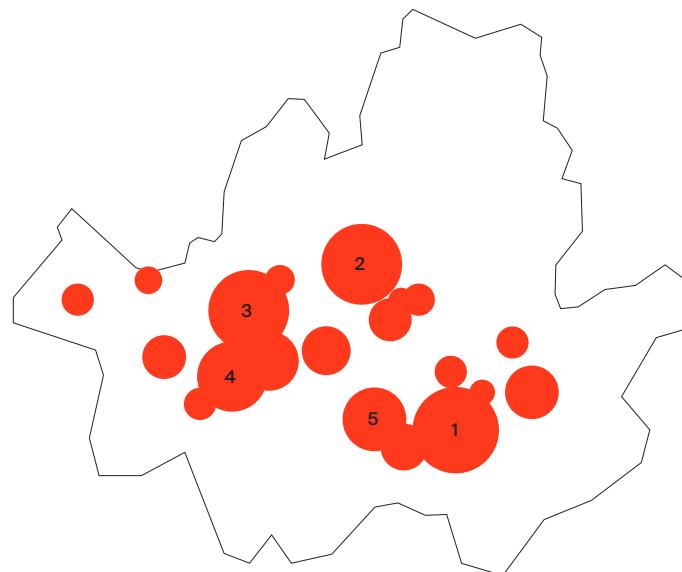


DIGITAL REPORT
VOL.1

SEOUL NOW: 서울의 지금

오늘 당신의 서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더현대 서울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 도시의 안팎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주말 서울 유동 인구 지도

주말 유동 인구 TOP 15

지난 1년간 서울 주말의 유동인구 1위는 강남구 역삼 1동이 차지했다. 핫플레이스보다 주거지역 및 오피스 타운이 주변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껴안으며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1	강남구	역삼1동	1.13%
2	종로구	종로1-2-3-4가동	1.02%
3	마포구	서교동	1.00%
4	영등포구	영등포동	0.89%
5	서초구	반포4동	0.84%
6	영등포구	여의동	0.76%
7	송파구	잠실6동	0.72%
8	용산구	한강로동	0.68%
9	서초구	서초3동	0.68%
10	양천구	목1동	0.65%
11	중구	회현동	0.65%
12	강서구	공항동	0.59%
13	중구	명동	0.59%
14	구로구	신도림동	0.59%
15	강남구	압구정동	0.58%

loplat

현재 내용은 로플랫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로플랫은 LG CNS와 네이버 등에서 투자를 받은 빅데이터 스타트업으로, 와이파이(wifi) 데이터를 이용해 무기방으로 실내 유동 인구를 측정하는 데이터 전문기업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DISTINCT date, adid 기준으로 '방문 건수'를 측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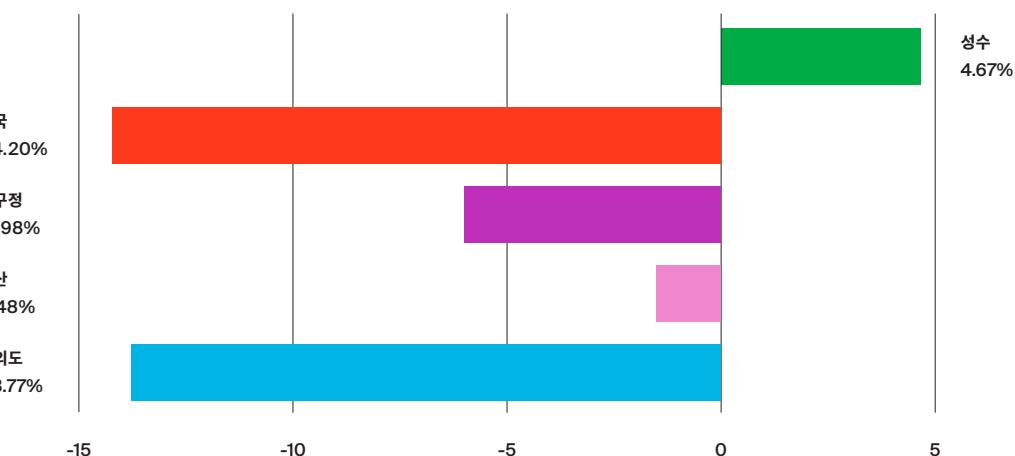
여의도, 더현대 서울 분석 기간
2020: 2020. 2. 28~12. 31
2021: 2021. 2. 26~12. 30

나머지 상권 분석 기간
2020. 1. 1~12. 31
2021. 1. 1~12. 31

지금 가장 핫한 서울의 유동 인구 비율

2020년 대비 핫 스포트 증감율

지금 가장 핫한 성수, 안국, 압구정, 용산, 여의도 5개 지역
유동인구 조사 결과, 팬데믹 여파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지만,
성수 지역만 증가세를 보이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잘 봐, 미술관 플렉스야”

미술관&박물관 TOP 3

2021년 한해 동안 서울러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미술관 및
박물관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그 뒤를 이었다.



1위
롯데월드민속박물관
24.71%



2위
국립중앙박물관
1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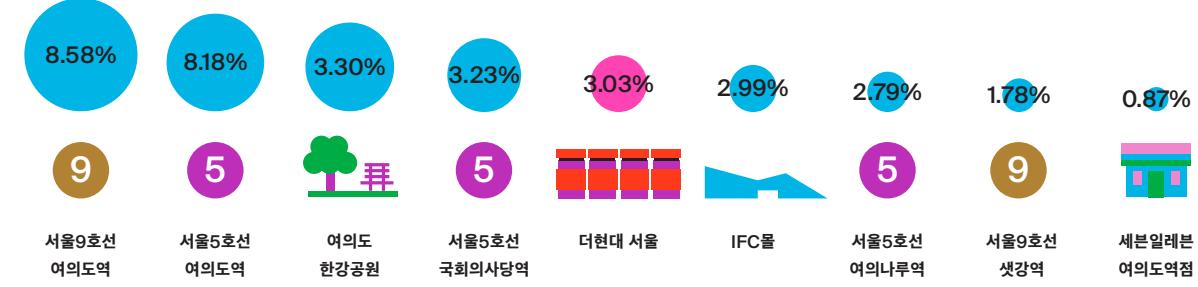


3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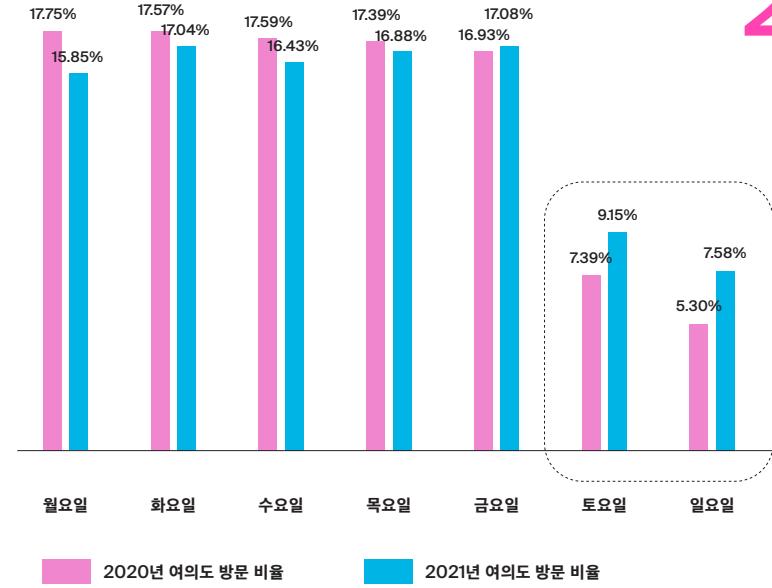
여긴 꼭 가야 해!

여의도 방문 건수 TOP 9

지난 1년간 여의도 유동인구 조사 결과, 대중교통 시설, 공공장소를 제외하면 더현대 서울이 상업 공간 중 1위를 차지했다. (단, 1인 1일당 여러 곳을 방문하는 등 방문 건수는 중복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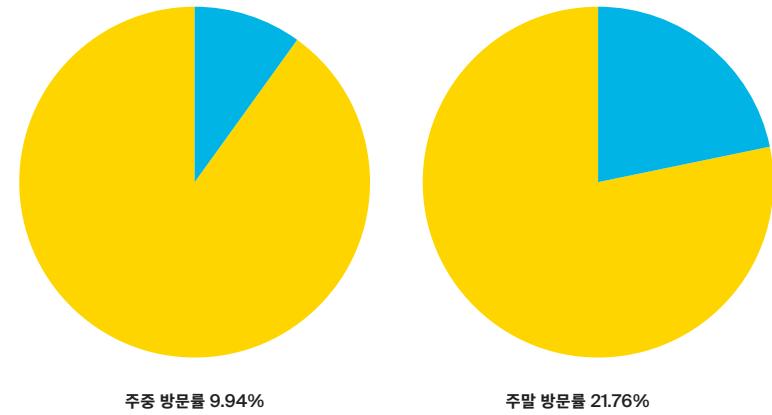


여의도 총 방문자 중 더현대 서울을 찾은 비율



전년 동기 대비 여의도 요일별 방문 건수 비율

21년 여의도 평일 방문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주말만큼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의도 내 주말 상권이 활성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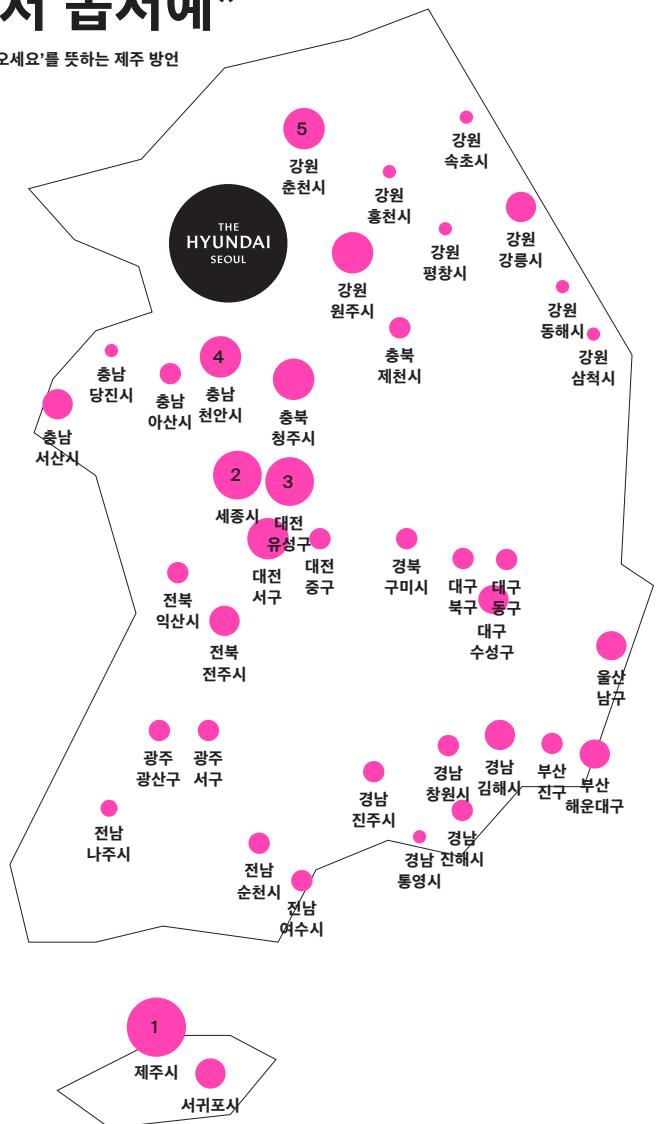


여의도 방문객 중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비율

21년 주말 여의도를 방문한 사람 중, 무려 21%의 방문객이 더현대 서울을 찾으며 대중의 인기를 확인했다.

혼자 읍서예*

* '어서오세요'를 뜻하는 제주 방언



수도권을 제외한 방문자 지역 TOP 5

수도권을 제외한 더현대 서울의 방문자 지역 1위는 제주도가 차지했다. 어느새 '서울에 오면 꼭 들러야 할'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 잡은 것. 세종시, 대전 유성구가 나란히 2, 3위로 뒤를 이었다. 더현대 서울은 광역시 및 김포공항과 가까운 입지를 통해 불과 1년 만에 전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존재감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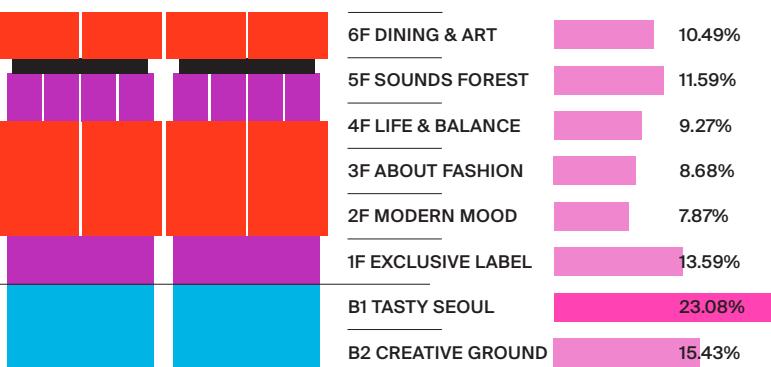
우리는 깐부

더현대 서울 방문객이 택한 여의도 내 교차 방문지

1위는 IFC몰이었으며 2위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IFC몰의 절반 정도의 교차 방문 비중을 차지했다. 더현대 서울을 찾는 방문객의 니즈가 IFC몰, 여의도 한강공원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공간



더현대 서울 층별 방문객 분포

지난 한 해 동안의 층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지하 1층 테이스티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지하 2층, 1층, 5층, 6층, 4층, 3층, 2층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식품관 테이스티 서울은 맛의 선택지를 넓혔으며, MZ 세대를 겨냥한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 역시 취향을 저격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많이'와 '증가', '열광'과 '인기'라는
모호한 말 대신 기분 좋게 끄덕이게 하는
또렷한 말로 지난 1년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 모든 수치는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현대 서울 TMI

좌표가 궁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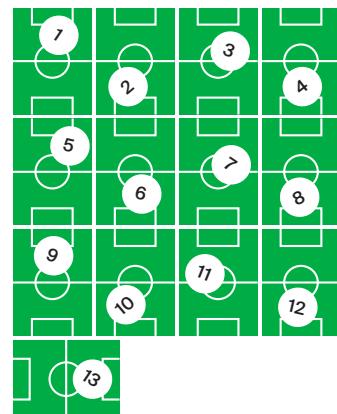


더현대 서울의 숨은 뷰 명당은
2층 카페 오븐 안쪽 창가 자리다!
내부자 파설, 2층 카페 오븐 안쪽 창가
자리에서 바라보는 워터풀가든 뷰는 최고의
조망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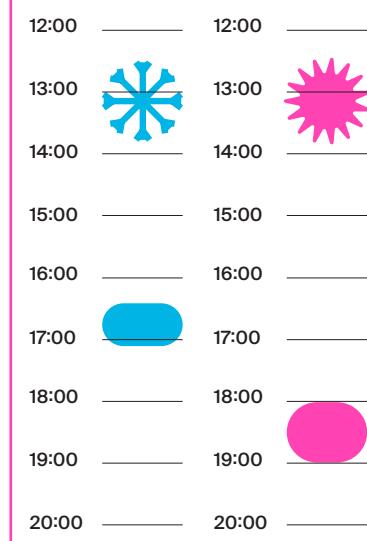
13

더현대 서울은 축구장 13개 크기다
서울 최대 규모의 영업면적 8만
9100m²(2만 7000평)으로 FIFA 기준
7140m²의 축구장 13개를 합한 크기다.



4:30PM, 6:00PM

고백에 성공하는 시간은
오후 4시 30분과 6시다
모든 것은 타이밍. 분위기가 도와주는
더현대 서울의 매직 아워는 따로 있다.
겨울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여름에는 오후 6시부터 1시간가량. 자연
채광과 조명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낭만적인
운치를 자아낸다. 인증샷은 거들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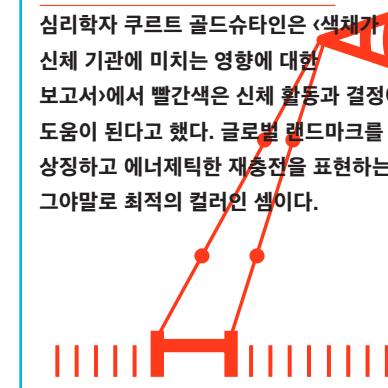


480만 명

더현대 서울의 F&B를 방문한 누적 고객
수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 비슷하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수는 489만
8201명이다.(KOSIS 기준)

빨간 맛

리처드 로저스 경이 설계한 더현대 서울
외벽 기둥의 팬톤 컬러는 185C다
심리학자 쿠르트 골드슈타인은 <색채가
신체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빨간색은 신체 활동과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글로벌 랜드마크를
상징하고 에너제틱한 재충전을 표현하는
그야말로 최적의 컬러인 셈이다.



71만 2962L

1년간 판매한 음료량을 모두 더하면
무려 소방차 254대를 채울 수 있다
총 285만 1849잔을 판매했으며 이를
합하면 71만 2962L(소방차 1대당 평균 물
적재량 2800L)다.

* 카페 레이어드, 테일러 커피, 카멜 커피, 슈퍼말차,
블루보틀, 제네랄드링크샵, 올댓커피, 스타벅스, 카페
오븐, 고디바, 백미당, 미켈레, 버틀러 커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년 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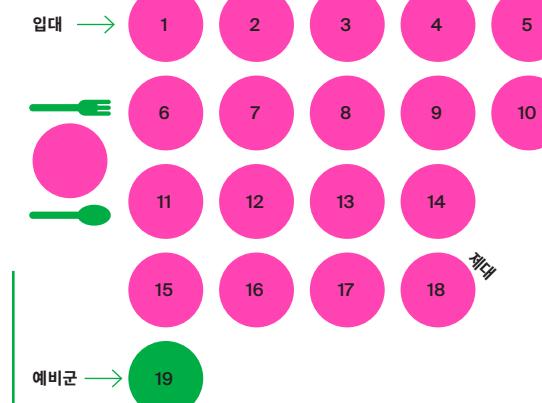
더현대 서울의 모든 메뉴를
하루 한끼 먹으면 만기제대를 한다
지하 1층, 6층에 자리한 미식 로드의
메뉴는 총 600개. 하루 한끼 맛보면
약 19개월이 소요되므로 군 복무 기간인
18개월(육군 기준) 동안 매일 먹어도
남는다.

54km

카페 레이어드에서 1년간 판매한 스콘을 일렬로 세우면 성충권을 뚫을 수 있다
총 54만 7500개를 판매했으며, 개당 높이 10cm로 이를 더하면 총 54km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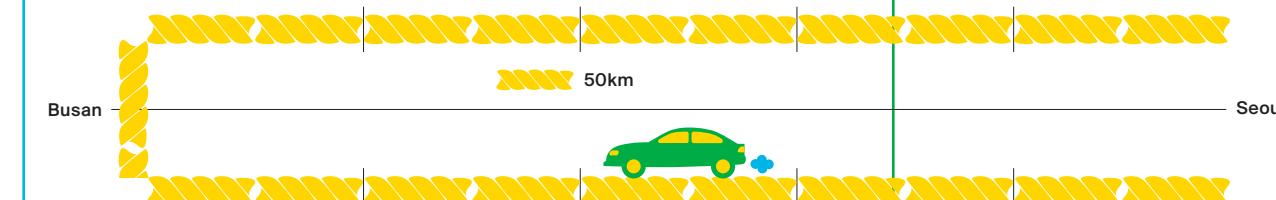
*성충권 : 대류권 위로부터 고도 약 50km까지의 대기층

성충권



1063km

이탈리에서 판매한 스파게티 길이를 더하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
총 1063km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약
800km를 출찍 뛰어넘는다.



8000m

호우섬에서 판매한 만두의 접시를 세우면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다
약 11만 7886접시를 판매했으며 이를 나란히
세우면 8000m. 세계에서 13번째로 높다는
히말라야산(8035m)과 맞먹는다.

1007명

최고 기록 예약 인원이 줄 서면 마포대교를 넘는다
2021년 5월 1일 카멜 커피는 일일 기준 1007명이라는 최고 웨이팅을 기록했다.
1m 거리 두기 유지 시 길이 1400m인 마포대교 입구에서 끝까지 설 수 있다.

스콘 1만개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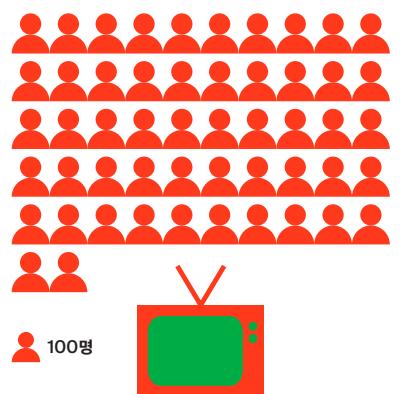
5000

5200만 시간

CH1985에서 회원들이 각자 수강한 강의 시간을 합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번씩 참여한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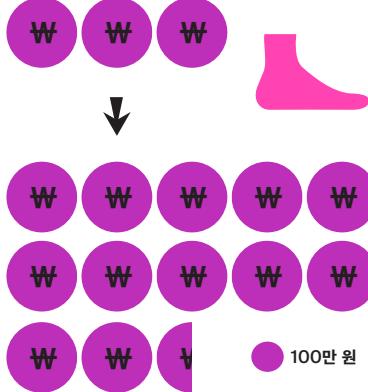
1년간 총 수강 회원 수는 1만 3000명, 총 강좌 수는 4000개에 이른다.

강의 시간을 평균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5200만 시간이다.



1265만 원

BGZT Lab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스니커즈는 에어 조던 1x 디올 하이 OG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2020년 4월 전 세계 디올 매장에서 1000켤레 한정으로 발매되었으며 국내 발매가는 300만 원. 리셀가는 4배 넘게 오른 1256만 원으로 이는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포함한 웬만한 훈수 가전 세트와 맞먹는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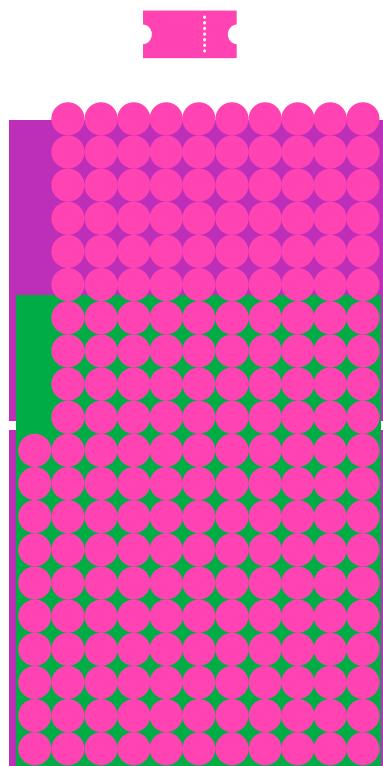


4200m²

ALT.1 방문객의 티켓을 펼치면

사운즈 포레스트를 덮는다

평균 1시간씩 20만 명이 관람했다. 방문 티켓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 티켓 규격 10×21cm로 총 판매 부수 20만장을 환산하면 4200m²(1270평)다. 사운즈 포레스트를 덮고도 남고(약 1000평), 6층 식당가 면적(약 650평)의 2배에 달한다.



1.46배

태극당에서 판매한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펼쳐놓으면 거대

아이스링크를 꽉 채우고도 남는다

모나카 1개의 크기는 11x6cm로 총 39만 9671개를 판매해 면적 약 2637m²다.
이는 국제규격 1800m² 아이스링크 대비 1.46배에 달하는 수치다.



3305m²

사운즈 포레스트에서는

호흡하는 순간 보너스가 생긴다

산림청이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에 달한다.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인데, 사운즈 포레스트는 외부가 아닌 3305m² (1000평)의 인도어 네이처(Indoor Nature)를 조성해 더 많은 자연과 혜택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의도한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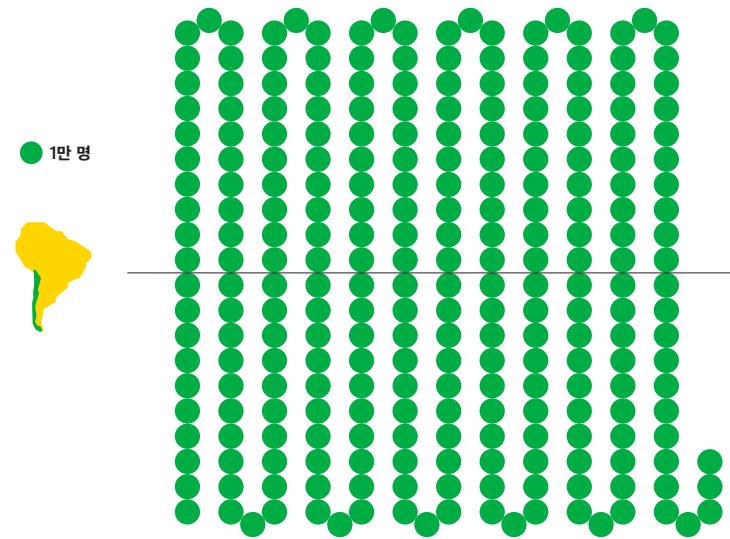
더현대 서울에서 가장 습도가 높은 매장은 지하 1층 레슬베르다

시가는 적정 습도 70%를 유지해야 품질 보존이 가능하므로 시가 전문 매장에서 습도 관리는 필수다.



433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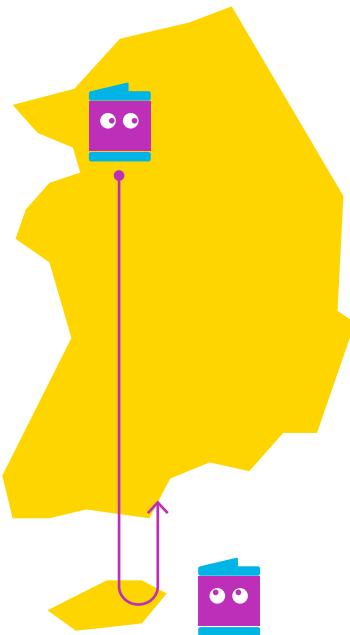
테이스티 서울을 즐기기 위해 웨이팅한 줄은 칠레를 관통한다
총 255만 441명으로 일렬로 서면 4336km가 넘는다. (1.7m 거리 두기 기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칠레를 관통하고도 남는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칠레의 국토 길이는 4300km다.



573km

AI 로봇 큐브릭은 서울에서 제주도를 완주했다

1년간 큐브릭이 더현대 서울 내에서 이동한 총 거리는 573km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470km를 웃돈다.



9배의 즐거움

1인당 평균 체류 시간은 온라인 플랫폼 대비 9배다

더현대 서울의 1인 평균 체류 시간은 79분(4740초)으로 온라인 플랫폼 1위인 무신사 8분 15초(495초, 2020년 기준)의 9배다.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도 9배란 뜻!



31

더현대 서울의 큰손은 서른한 살이다

30대가 37.6%로 높은 구매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31세가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여주었다.



머물며 경험하는 가치

더현대 서울

100가지 취향을 담다 STYLE

A 사무엘스몰즈

‘태초에 덕질이 있었으니.’ 사무엘스몰즈는 말 그대로 덕질을 부른다. 빈티지하고 팝한 스타일로 네온 컬러 멀티탭과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 조명, 빈티지 포스터 등이 주력 아이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소품 하나, 포스터 한 장으로도 충분하지요. 여기에 위트를 한 방울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 민태현 매니저

PICK

- 1 사무엘스몰즈를 대표하는 멀티탭은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만날 수 있다.
- 2 톰과 제리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담은 빈티지 포스터.



A2

편집력이 곧 창의력이자 디자인인 시대. 하이엔드와 스트리트, 여기에 빈티지한 감수성까지, 다름과 공감의 절묘한 균형으로 경계를 허문 더현대 서울만의 큐레이션을 모았습니다.

B H by H

현대백화점 자체에서 운영하는 H by H는 다양한 생활 소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취급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굽직한 해외 브랜드는 물론 국내 작가들의 아름다운 공예 작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합리적인 생산과 올바른 소비를 연구하는 브랜드인 만큼 쓰임 좋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아이템을 두루 갖췄다.

PICK

- 1 PB 제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팔레트 테이블 매트. 11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 2 권나리 작가와 협업한 스틸라이프 머그컵.
- 3 정준영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한 아키타입 익스클루시브. 펁치 자국과 블루 컬러가 멋스럽다.



B2

C 아키타입

챕터원과 현대백화점이 함께 만든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굽직한 해외 브랜드는 물론 국내 작가들의 아름다운 공예 작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합리적인 생산과 올바른 소비를 연구하는 브랜드인 만큼 쓰임 좋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아이템을 두루 갖췄다.

PICK

- 1 색과 음영의 투영으로 공간을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만달라키 헤일로 조명.
- 2 권나리 작가와 협업한 스틸라이프 머그컵.
- 3 정준영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한 아키타입 익스클루시브. 펁치 자국과 블루 컬러가 멋스럽다.



C3

D 하이츠 익스체인지

로어스, 와일드 빙스, 더오픈 프로덕트, 스튜시 등 매 시즌 감각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랜드를 전개한다. 실용적인 캐주얼 라인부터 최고의 스트리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기존 로드숍은 매니악한 고객이 주를 이루었다면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찾고 있어요. 하이츠 익스체인지는 여러 아티스트와 뮤지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서브 컬처를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그에 관한 관심도, 이해도 높은 편이고요. 더현대 서울을 통해 처음 접해보는 분도 적지 않은데 평키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점점 감도를 높여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김지훈 매니저

PICK

유니크한 감성으로 많은 여성의 사랑을 받는 더오픈 프로덕트.



E 나이스웨더

신개념 편의점을 표방하며 의류, 식품, 생활용품에서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전개하는 나이스웨더. 평범한 드러그스토어 같지만 인스타그램을 한 공간과 핫한 아이템 덕분에 MZ세대부터 30대까지의 사랑을 두루 받고 있다.

“나이스웨더는 ‘현세대가 원하는 편의의 의미’에 집중했어요. 마음속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편하면서도 예쁘고 기분 좋은 물건으로 채웠죠. 여러 개 집어도 부담 없는 가격도 매력적이고요. 인센스 스틱이나 크렘드마롱 밤잼, 휠드 등 소소하게 나를 위로하는 아이템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 이고진 부매니저

PICK

앵한 코발트빛 시그너처 로고 플레이로 소장욕을 자극하는 나이스웨더의 PB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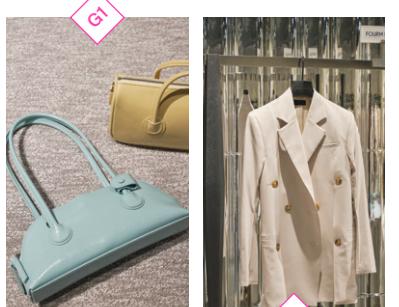
F PEER

현대백화점이 선보이는 컨템퍼러리 스트리트 컬처 편집 스토어. 슈프림, 스포티 앤 리치, 팔라스, 키스, 칼하트, 오베이, 데우스 등 지금 가장 뜨거운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실험적인 디스플레이와 공간 경험은 단순히 옷을 판매하는 숍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지향을 보여준다.

“백화점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제 밀레니얼과 시니어의 소비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아 ‘나만의 기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데우스를 추천해요. 스트리트 무드를 담고 있지만 박시하지 않고 적당한 핏감으로 마른 체형이나 시니어에게도 잘 어울리거든요.” — 최종원 부매니저

PICK

- 1 로고만 불어 있으면 벽들도 팔린다는 슈프림의 인기는 피어에서도 유효하다.
- 2 더현대 서울 피어에서만 독점으로 선보이는 멜리사와 프로젝트의 젤리 뮤.



10 G 품

모던하게 재해석한 클래식 스타일을 기반으로 세련된 룩을 제안하는 편집숍이다. 엔폴드, 르비에르, 얼루드 등의 의류를 비롯해 크리스탈 헤이즈, 마지셔우드와 같은 액세서리, 그레이 메종, 이젠클로프, 헤이 등의 리빙 소품류도 두루 갖추었다.

PICK

- 1 MZ세대의 뜨거운 호응으로 품질 대란을 일으킨 마지셔우드의 지퍼 스몰백과 베셋 솔더백.
- 2 슬릿 디테일과 구조가 멋스러운 유돈초이의 재킷.

H 이노메싸

헤이, 앤트레디션, 비트라, 아르텍, 험, 메누 등 스칸디나비아의 차별화된 심플함과 실용성을 겸한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더현대 서울은 이노메싸가 처음으로 정식 선보이는 백화점 매장으로 기존에 소품과 액세서리에 치중했다면 소가구에 초점을 맞춰 토템 인테리어를 진행한다.

PICK

- 1 다양한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힌 헤이의 피씨 포터를 램프.
- 2 팽한 컬러와 유려한 곡선미로 꾸준히 사랑받는 비트라의 팬톤 체어.
- 3 독일 기능주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엘엔씨스텐달의 아르노 417.



I 아이엠샵

허즈번즈 파리스, 벌스데이수트, 리프로더션 오브 파운드, 스튜디오 니콜슨, 오라리, 아워레가시 등 남다른 심미안으로 큐레이션한 브랜드를 전개하는 프리미엄 편집숍.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에 에지를 놓치지 않는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삼아 트렌드를 가까이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샵만이 할 수 있는 실험적인 시도, 독보적 큐레이션은 거기서 비롯하지요. 특히 은은한 컬러에 획기적이고 모던한 테일러링을 가미한 송 포 더 뮤트는 차분하면서도 아방가르드한 무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 김현수 매니저

PICK

오라리의 탄탄한 텍스처와 컬러가 돋보이는 인디고 데님.



J 스컬프 스토어

엔지니어드 가먼츠, 웨어하우스, 비즈빔, 캐피탈, 반스 볼트, 니들스, 살로몬, 이스트로그 등을 전개하는 편집숍이다. 주류의 요구에 맞추기보다 소수가 만족하는 한 것 다른 스타일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를 망라해서인지 재방문율,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만족도도 높다는 뜻일 테고요. 스컬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반스 볼트나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에 관한 관심도 높고요. 캐피탈은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최고의 봉제 기법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완성도가 뛰어나요. 자연스러운 그들만의 멋이 있어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해요.” — 송형섭 매니저

PICK

힙한 감성에 동양의 무드를 섞은 캐피탈은 다양한 착장에 두루 어울린다.



11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BRAND

건강한 집요함과 남다른 희소함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12**
완성한 디자인 브랜드를 만나보세요. 더현대 서울이 선정한
가장 ‘그들다운’ 분위기는 하나같이 세련되고 차별화되며
미래지향적입니다.

A 무토

모던 디자인과 소재, 혁신적인 기술과
독특한 색감을 더해 새로운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덴마크 브랜드. 뜯
떨어지는 간결한 디자인과 은은한 컬러는
어떤 스타일, 어떤 디자인에도 자연스레
녹아든다.

P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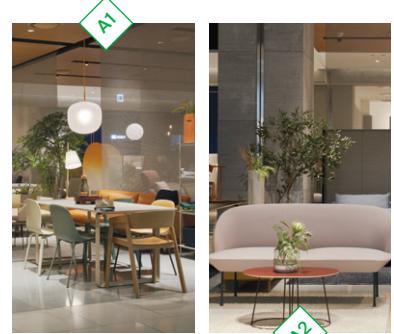
- 1 다양한 세이프의 체어를 모아 리듬감 있게 연출한 무토의 다이닝 세트. 커버 체어는 덴마크의 토마스 벤젠이 디자인했다.
- 2 날렵한 디자인의 오슬로 소파는 원하는 컬러와 소재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B 프리츠한센

아름다운 디자인과 품질, 장인 정신으로
현대적인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다.
한스 베그네르, 아르네 야콥센 등 유명
디자이너와 건축가의 헤리티지를 담은
가구, 조명 및 액세서리를 전개하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PICK

- 1 유례한 곡선 디자인이 특징인 파튼 소파는 하이메 아온이 디자인했다.
- 2 프리츠한센을 대표하는 아르네 야콥센의 에그 체어.
- 3 다양한 소재와 컬러로 만날 수 있는 시리즈 세븐
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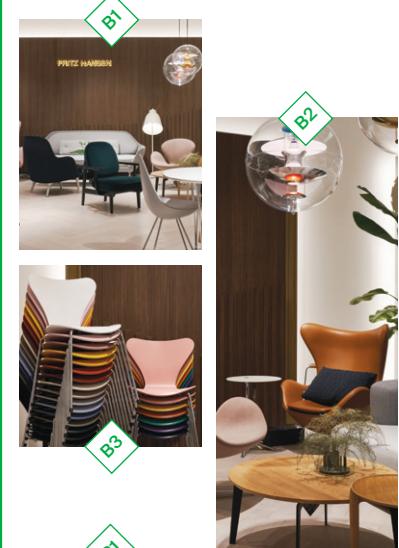


C 르메르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전 세대에서
폭넓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르메르. 클래식과 모던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다. 디테일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타임리스 디자인은 언제 어디에서 입어도
세련되고 매력적이다.

PICK

- 1 모두 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전설의 벙백. 인기 컬러는 금방 솔드아웃된다.
- 2 정제된 고급스러움의 정수를 보여주는 타코백.



D LG 메가스토어

메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울 소재 백화점
최대 규모다. 약 661m²의 공간은 TV존,
냉장고존, 세프 컬렉션존 등 실제 공간에
맞게 연출해놓아 소비자의 이해를 높였다.

PICK

- 1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주방을 제안하는 세프 컬렉션.
- 2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짚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오브제 컬렉션.

E 삼성 메가스토어

서울 내 백화점 최대 규모인 661m²를
자랑한다. 홈 스타일링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건강한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곳으로 가전부터 모바일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 무엇보다 상담원이
상시 대기해 예산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돋는다.

PICK

- 1 ‘가전을 나답게’란 모토 아래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비스포크 시리즈.
- 2 다양한 모델의 직접 체험이 가능한 모바일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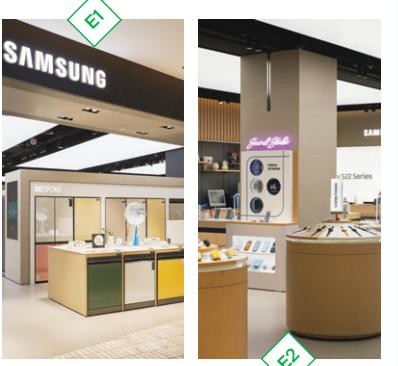
F 디스이즈네버댓

스포츠 앤 스트리트를 콘셉트로 밀리터리
스타일과 1990년대 스포츠웨어에서
모티프를 얻어 디자인을 전개한다.
묵직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가 특징으로
여기에 현대적인 터치를 더해 모던하면서도
웨어러블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스트리트하지만 과한 스타일을 지양하다
보니 20대층이 주를 이루면서도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컨버스,
그레고리, 뉴발란스 등과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전무한 분들도 종종 뵙는데, 자유롭게
들렸으면 해요. 저희 해치치 않아요! 하하.”

— 장인성 매니저

PICK

- 로고 플레이로 재미를 더한 스웨트 셔츠와 바시티
스카프를 착용한 디스이즈네버댓 크루들.



감각의 제국 TASTY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맛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은 잠시 넣어두세요. 가벼운
런치부터 분위기 있는 다이닝, 음료와 디저트까지.

셰프와 매니저가 추천하는 베스트 메뉴만 골라 먹어도
하루가 배부를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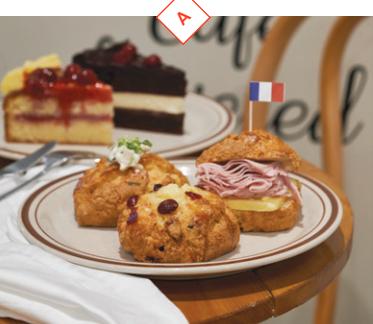
CAFE

A 카페 레이어드

스콘 하나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인스타그램 불러온 스콘 맛집이다. 오픈
초기 어마어마한 웨이팅으로 화제에
올랐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핫할까?
물론이다. 오후 2시부터 인기 메뉴는
빠르게 솔드아웃되니 부지런히 서두르길.

PICK

- 레이어드를 대표하는 크랜베리 크림치즈 스콘, 유니크한
맛의 쪽파 크림치즈 스콘, 잠봉藐로스콘, 빅토리아
케이크, 리얼다크 초코 케이크.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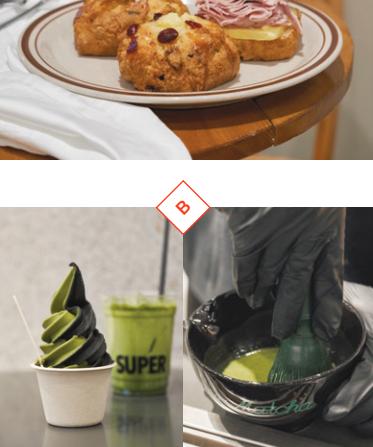
G

H



I

J



B 슈퍼말차

설탕은 빼고 달콤함은 그대로! 유기농
말차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와 커피, 티와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도 키트와 개별 포장한 말차도
판매한다.

PICK

- 진한 슈퍼말차와 고소한 블랙 코코넛 2가지로 맛을
낸 더티콘, 유기농 말차와 우유를 블렌딩한 오리지널
슈퍼말차 라떼.

C 테일러커피

젠틀하면서도 고급스럽고 편한 맛과
분위기를 추구하는 테일러커피. 오피스동
입구와 가까이에 위치한 덕에 점심시간에는
유독 붐빈다.

PICK

- 테일러커피의 베스트셀러 크림 모카,
얼음 없이 차갑게 즐기는 블루지, 푸드한
크림과 에스프레소가 조화로운 아인슈페너.

K

L



D 올댓커피

이탈리아의 로마, 나폴리, 시칠리아 지역의 다양한 에스프레소 문화를 재해석한 에스프레소 바. 서서 즐기는 스탠딩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다.

PICK

깊고 진한 맛의 바닐라 플랫, 바게트를 곁들여 즐기는 카페 제제, 차가운 슬러시를 섞어 마시는 카페 그라니파.

E 카멜 커피

고소한 맛과 특유의 빈티지한 인테리어로 인기를 모은 카멜 커피. 성수동 핫플레이스의 인기는 더현대 서울로 자리를 옮겨서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길어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만 크림과 에스프레소 조합의 시그너처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지난한 기다림은 곧 환희로 바뀐다.

PICK

더현대 서울 오픈 1주년을 기념해 한정으로 선보이는 신메뉴와 시그너처인 카멜 커피. 1주년 리미티드 메뉴는 초코를 베이스로 에스프레소와 크림을 블렌딩했다.



HAMBURGER

F 르프리크

내슈빌 핫치킨 버거를 메인 아이템으로 소고기 패티가 주를 이룬 수제 버거와 차별화를 꾀했다. 10여 종의 향신료를 사용한 치킨은 이국적이면서도 우리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기호에 맞게 치킨 패티의 맵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채롭다. 더현대 서울의 경우 가족 단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에 없던 'O' 단계를 준비했다.

PICK

내슈빌 핫치킨에 딜피클을 곁들인 시그너처 버거 세트와 디핑 소스와 함께 즐기는 하프 치킨.

G 에그슬럿

건강하고 맛있는 프리미엄 에그 샌드위치를 선보인다.



H 브로버거

육즙 가득한 패티와 채소를 겹겹이 쌓아 올린 푸짐한 비주얼로 존재감을 뽐내는 브로버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함은 물론 버거에 들어가는 모든 특제 소스를 손수 만들어 풍미를 더한다.

PICK

버섯, 트러플이 어우러진 트러플 머쉬를 버거와 치킨 비프 버거,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상큼하게 잡아주는 과카ولي 프렌치 프라이. 감자 튀김에 과카ولي, 사워 크림과 양파, 다진 토마토가 가득 올라가 있다.

I 폴트버거

테니스 경기장에서 모티프를 얻은 독특하고 경쾌한 인테리어가 시각적 재미를 더한다. 블루와 레드의 산뜻한 조화, 테니스 코트 모양의 트레이, 한쪽에 쌓아둔 밀크 박스 등 단순한 식당을 넘어 그야말로 세트장에 온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PICK

소고기 패티와 아메리칸 치즈, 신선한 채소와 피클을 곁들인 시그너처 메뉴 폴트버거와 오직 더현대 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더현대 더블버거.

J 금옥당

국산 팥으로만 가마솥에서 직접 양금을 만들어 사용하는 양갱 전문점. 레트로풍의 전통 패턴을 재해석한 아기자기한 패키지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추, 견과, 백양금을 비롯해 밀크티, 라즈베리 등 현대적인 입맛까지 사로잡은 16가지 종류로 선보인다.

PICK

기본적인 맛에 충실했 통팥양갱, 팥양갱, 보성 말차 양갱, 그리고 알밤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공주밤 양갱.

K 마애

서래마을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으며 정통 프렌치 디저트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마애를 더현대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최고급 재료를 이용한 최상의 조화는 여전히 '긴 줄'이 입증해준다.

PICK

바닐라 크림이 듬뿍 들어간 딱뜨 바니, 라임크림과 이탈리언 머랭을 곁들인 딱뜨 씨트홀베흐와 딸기, 블루베리, 유자 맛 마카롱 3종.

L 명인명촌

전국 식품 명인들의 손맛을 그대로 담은 명인명촌에는 참기름, 들기름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스크림이야말로 이곳에서 빼놓지 않고 먹어봐야 할 주전부리. 제주도 방목 우유를 베이스로 해 건강한 데다 쌀초청, 제주 감귤초, 누룽지 등 맛도 유니크하다.

PICK

제주 감귤 과즙을 항아리에서 농축한 감귤초로 맛을 낸 제주 감귤초 아이스크림, 진한 찻잎 향의 달고 쌈싸래한 녹차 아이스크림, 석창포 물로 달인 약선 누룽지를 같아 넣어 씹는 식감이 살아 있는 누룽지 아이스크림.

DESSERT

M 22 푸드트럭 피자

1322m² 규모를 자랑하는 미식 공간.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의 푸드트럭 식문화를 느낄 수 있다. 칠링캠프, 프랑스 유학 다녀온 김순대, 앞산 분식, 면 볶는 트럭 등 양식과 분식, 동남아 요리까지 아우르는 메뉴를 만날 수 있다.



WINE

N 와인웍스

리테일과 레스토랑을 결합해 와인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만족시킬 4500여 종의 와인을 준비했다. 한 쪽에 마련해 놓은 페어링 공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함께 선보이며, 그에 어울리는 최적의 와인을 전문가가 추천해준다.

“와인웍스의 매력은 편안함이에요. 조예가 깊은 이도, 입문자도 눈높이에 맞는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코르크 차지 없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요리와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최근에는 내추럴 와인, 개중에서도 ‘오렌지 와인’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 가볍게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맛과 향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 조서경 매니저

PICK

프리미엄 샴페인 ‘도비 리저브 프리미에 크뤼’. 옆은 골드 컬러의 폴바디 화이트 와인 ‘샤토 몽투스 블랑’. 떠오르는 미국 화이트 와인계 스테디셀러 ‘불러 사도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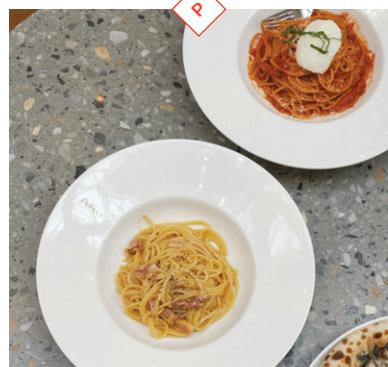
O 수티

짚풀 우대갈비의 원조 ‘동탄’, 미쉐린 최초 돼지고기 맛집 ‘금돼지 식당’, 청담동의 ‘뜨락’이 모여 만든 BBQ 브랜드. 저온으로 30시간 조리한 포크와 비프 샌드위치, 김치볶음밥이 들어 있는 로스트 치킨을 선보인다. 실제 세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진공 포장도 가능하다.

“아직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최고 품질의 저온 숙성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맛을 보면 단골도 곧잘 생겨서 그 또한 큰 동력이 되고요. 위생을 첫째로, 맛의 기본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정병찬 세프

PICK

갓 구운 로스트 치킨과 저온으로 조리해 육즙을 가득 머금은 로스프 비프. 로스트 비프를 곁들인 샌드위치.



P 이탈리

양질의 재료로 본토의 뛰어난 맛을 선사한다. 레스토랑과 카페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천고와 개방감으로 평화롭고 아늑한 휴식을 함께 제공한다.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열려 있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 되돌아오는 ‘접시’ 피드백에 주목합니다. 정직한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탈리 본연의 풍미를 해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 하경진 세프

PICK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트러플 소스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트러플 피자, 달걀 노른자와 파르메산 치즈로 진한 맛을 낸 카르보나라, 토마토에 바질을 곁들인 이탈리아 파스타의 대표 주자 뽕모도로 바질리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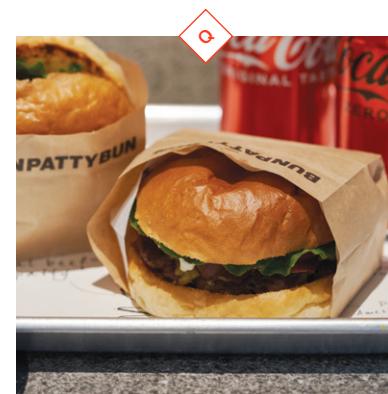
Q 번페티번

햄버거가 어떻게 오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프리미엄 수제 버거 맛집. 저온에서 숙성하는 소고기 패티, 손수 반죽하는 유기농 탕종 브리오슈번 등 프리미엄 식재료만을 사용해 본연의 맛에 충실히하다.

“기분 좋은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뺨과 패티의 맛에 집중하는데 오랜 시간 노력해요. 저녁 메뉴로 느긋하게 즐기시는 걸 보면 햄버거의 고급화라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지요. 실제로 뺨만 따로 구입할 수 없다는 문의도 많고요.” – 고대석 매니저

PICK

시그너처 번페티번 버거, 두툼한 패티와 버섯이 꽉 차게 들어간 트러플 머쉬룸 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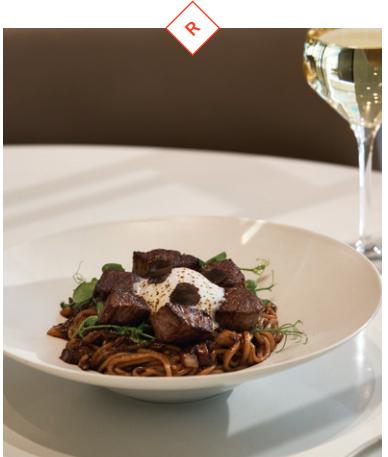
R 도원스타일

정통 중식 레스토랑 ‘도원’의 세컨드 브랜드로 중식을 새롭게 재해석해 선보인다. 짙고 새로운 메뉴와 플레이팅을 감각적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주변 직장인들을 위한 메뉴는 기본, 카렐리니를 활용한 중국냉면, 굴짬뽕 등 시즌 메뉴도 내놓는다. 요리와 곁들일 다양한 와인 페어링은 덤.

“지름길은 없어요. 최고의 식재료, 기복 없는 맛과 질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관리, 그리고 서비스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광동식 스모크 목살 바비큐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오븐에서 장시간 구워 부드러운 육질은 살리고 기름기는 꽉 뺀 데다 훈연 퍼포먼스로 보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거든요.” – 백승화 세프

PICK

도원스타일을 대표하는 트러플 스테이크 블랙 누들. 부드러운 소고기 안심에 수란, 트러플로 풍미를 완성한 프리미엄 볶음 자장면이다.



16

당신이 되어본다
REST & CULTURE

더현대 서울은 휴식과 힐링 나아가 내 안의 감수성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번에는 기꺼이 ‘당신’이 되어보는 수고가 숨어 있어요. 모든 이가 좀 더 편히 머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한 더현대 서울의 배려를 더 가까이 누려보세요.

17

MINI INTERVIEW

정재술 총괄 가드너



가든에서 좋은 향기가 나서 놀랐어요.

간혹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운즈

포레스트에서 나는 향을 구입하고 싶다고.

한데 이곳에서는 인공적인 향이나 잎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오렌지 재스민과 개나리 재스민에서 풍기는 자연 그대로의 향이에요.

실내, 그것도 고객과 접하는 공간이기에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중부 이북의 나무를 심게 마련인데 사운즈 포레스트에는 남부 수종을 심어 기후나 온도를 더 까다롭게 관리해야 하지요. 호랑가시나무, 흥가시나무, 은목서,

후피향나무 등 종류도 다양하고요. 아이가 아프면 당황스럽지요? 알아채기도 어렵고.

나무는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해아려야 합니다. 더 세심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과가 아침 7시에 시작되는데 오마자 하는 일이 나무 컨디션을 살피는 거거든요. 잎이며 꽃, 줄기는 괜찮은지 밤새 안부를 묻는 과정이지요. 그런 후에 알맞은 처방을 내리고 또다시 살피는 일의 반복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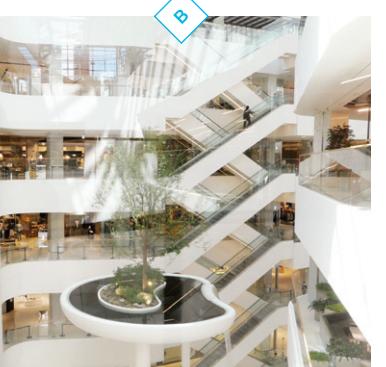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완성되었네요. 보람도 많이 느끼시지요?

처음 사운즈 포레스트가 조성된 시점부터 꼬박 함께했으니 자식 자라는 걸 보는 느낌이지요. 이곳에서 편히 쉬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반대로 안타까운 일도 많아요. 더러

가든에 커피며 음료를 버리는 분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다 독이거든요. 사진 찍느라 심하게 나무를 훼손하는 분도 있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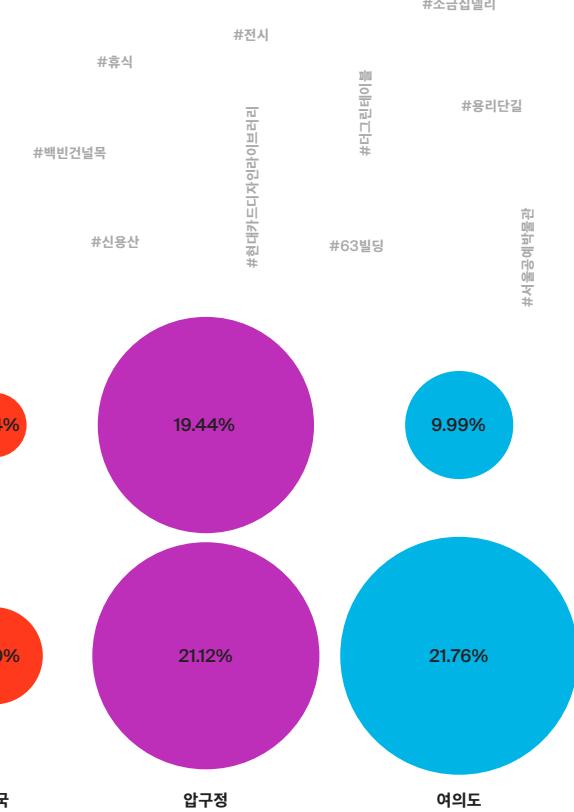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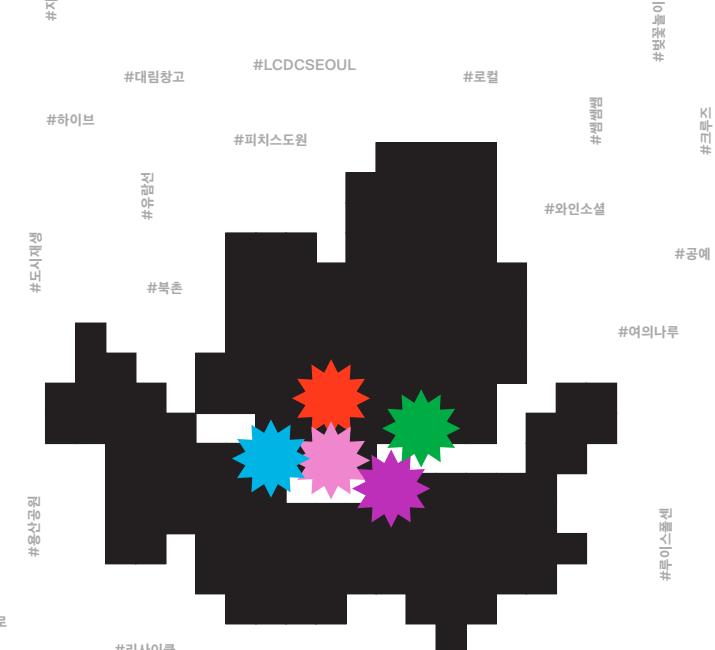
사운즈 포레스트를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침에 부지런히 나무를 점검하고 나면 11시쯤 햇빛이 가든 쪽으로 스며듭니다. 간혹 그 순간 6층에서 가든을 내려다볼 때가 있는데, 참 평화롭고 좋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오실 분들을 떠올려보지요. 편히 쉬고 가시길, 좋은 시간이 되시길. 아마 올해도 매일매일 그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할 겁니다. 온전히 누려주시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해시태그 서울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취향이
탄생하는 것이 오늘의 서울입니다.
나의 경험과 만족은 재미와 편리 그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전에 없던 ‘
지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E CH 1985

1985년 업계 최초로 문을 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더현대 서울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부티크 컬처
살롱으로의 시작을 알렸다. MZ세대를
위한 취향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 클래스와 적은 회차로 부담을 줄인



B 워터풀가든

지상 3층에서 1층까지 이어지는 약 12m 높이의 인공 폭포는 더현대 서울의 상징과도 같다. 실내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더현대 서울의 명민함이 녹아 있는 대목. 시원한 개방감과 동시에 생동감 넘치는 물소리가 공감각적쾌감을 선사한다.

C 스튜디오 뽀띠

현대백화점의 키즈 브랜드 쁘띠 플래닛이 선보이는 키즈 콘텐츠 토탈숍. 물량로티, 크레빌, 나비타월드, 아랍북스 등 총 12개의 브랜드와 함께 시소와 크래들로 꾸민 플레이그라운드다. 스튜디오 쁘띠가 자리한 5층은 유아 의류와 잡화, 이유식,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도 즐비하다.

파워클레이트, 웃고 노는 플랫폼인 만화 플라워', '티 오마카세', '트렌디한 재테크', 아트테크', '알고 마시면 쉬운 위스키 클래스' 등 소수 정예의 프라이빗하고 프리미엄한 클래스가 인기를 모았다. 헤리티지와 새로운 감각을 절묘하게 담아낸 리브랜딩 작업은 '2021 레드닷 어워즈' 부문을 수상해 노년대 고객을 이끌어방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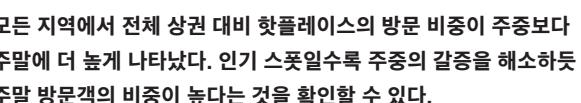
D ALT.1

6층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알트원에서는 '이동 없이' 쇼핑과 문화생활을 겸할 수 있다. 오픈을 기념해 진행한 앤디 워홀의 대규모 회고전 <앤디 워홀 비기닝 서울>, 이어진 감성 체험 전시 <비욘드 더 로드>도 큰 호응을 얻었다. 4월 24일까지는 세계 최초로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Springatime Delight>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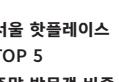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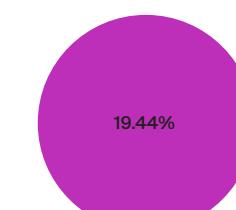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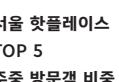


PICK

업계 최초로 시도한 CH 1985의 굿즈 '2021 레드닷 어워즈' 본상을 수상했다.



로플랜 숙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핫플레이스
TOP 5
족족 방문객 비중

서울 핫플레이스
TOP 5

성수 바이브

성수동은 자동차 공업소와 구두 공장, 염색 공장 등이 모여 있는 공장지대였다. 지금이야 ‘힙합’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외면받기 시작한 빈 공간이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채워지며 활기를 되찾은 경우다. 서울 근교에서나 볼 법한 공장형 카페가 속속 생겨났고 리테일과 서점, F&B를 모은 성수연방, 루이스 플센 성수가 들어섰다. 허름한 골목, 낡고 자연스러운 인테리어와 감성적 소품 등 옛 시절의 향수와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녹아들어 ‘성수=뉴트로’란 공식을 완성했다.

#성수바이브
#카페

#리사이클

#카페이스풀스

LCDC SEOUL

최근 인스타그램을 도배한 건 단연 #LCDCSEOUL. ‘LE CONTE DES CONTES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앞글자를 땠는데, 작은 단편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콘셉트를 담았다. 1층에 들어서면 카페 이페메라와 뮤직룸 그리고 팝업 공간 DDMMYY가 자리한다. 2층에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스크린트 드콩트, 3층에는 1개의 팝업 공간과 오이뮤, 글월, 한아조, 요안나 등 6개 브랜드의 도어스가 위치한다. 루프톱 바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lcde.seoul](#)



20

#LCDCSEOUL

#디밀청고

#뉴트로

모노하 성수

모노하 한남에 이은 2호점으로 리테일과 전시 공간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스크린트. 모노하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여백의 미를 살린 ‘비어 있는’ 아름다움에 집중했다. 모노하가 전개하는 자체 제작

모노하 성수

의류를

비롯해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기물과

스튜디오 암마,

클라리케,

메종 루이마리

제품 등 대부분의 큐레이션은 과하지도 멋부리지도 않는다. 세나 바소즈의 개관전에 이어 릴리 체어 탄생 50주년을 기념한 <불완전한 아름다움>, 김한솔 개인전 등을 열며 성수동의 문턱 낮은 갤러리 역할도 겸한다. [@monoha.seongsu](#)

#피치스도원

#성수바이브
#카페

#도시재생

#아더스페이스2.0

#용인공원

#로컬

#모노하성수

#모노하성수

#모노하성수

#LCDCSEOUL

#도시재생

용산 비하인드

용산이 다시 뜨겁다. 지난해 5월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등지를 틀면서부터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생기고 신용산역과 삼각지를 잇는 일명 용리단길이 활기를 띤 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 오래된 주택과 건물들 사이로 카페와 펍, 식당이 하나둘씩 박혀 있는 골목은 노포와 트렌드가 뒤섞여 아기자기한 느낌이다. 브런치의 성지 어프로치, 여성 최초 국가대표 바리스타 유연주가 운영하는 퀴즈 커피, 베트남 음식 전문점 호뜨에 이르기까지 맛집의 스펙트럼도 넓은 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나의 아저씨> 촬영장으로 유명한 백빈 건널목, 용산공원의 미군 장교 숙소 5단지는 끊임없이 인증샷이 업로드되며 MZ세대의 포토 스포트으로 사랑받는다.

21

#효드

#신용산

#퀴즈커피

#용인공원

#용산공원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미국으로부터 반환 받은 과거 용산기지의 일부는 2020년 8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개방된 미군 장교 숙소 5단지는 ‘도심 속 리틀 아메리카’, ‘버스를 타고 가는 미국’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포토존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용리단길

용산공원

25

16 KPH
WHEN PASSING
TROOPS IN
FORMATION

#백빈건널목

#삼각지

#하이브

#국립중앙박물관

#아트리움

© 이모레퍼시픽

#어프로치

쌤쌤쌤

샌프란시스코 감성을 담은 캐주얼 레스토랑. 미국과 호주에서 경력을 쌓은 김훈 세프가 현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식 가정식을 선보인다. 자유로운 미국 서부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공간 안팎의 인테리어와 디자인도 인기 요인. 직접 훈연한 잠봉에 버터소스와 레몬을 얹어 떠먹는 잠봉뵈르 파스타, 트러플 크림소스를 곁들인 쫀득한 놀끼, 클래식 라자냐가 시그너처 메뉴다. [@samsamsam_official](#)

#국립중앙박물관
#아트리움

낯설고 익숙한 섬, 여의도

#더현대서울

여의도가 변하고 있다. 정치와 금융의 도시로, 직장인뿐 아니라 휴식과 쇼핑을 즐기려는 이들과 MZ세대까지 흘수하며 새롭게 탈바꿈 중이다. 지하철이 공항까지 연결되며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지난해 2월 더현대 서울이 문을 연 덕분이다.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로 채운 IFC몰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여의도 한강공원도 인접해 가족 단위의 유동 인구도 많은 편.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꾸었던 여의도가 바야흐로 가장 뜨거운 놀이터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24

#세계화폐축제

#여의도한강공원

#금융

#크루즈

#IFC몰

더현대 서울

#여의나루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넓은 한강지구에서도 최하류 쪽 한강철교 중앙부터 국회 뒤 샛강 사면에 이르는 8.4km를 일컫는다. 더현대 서울과 바로 면해 있어 두루 들르기 좋다. 생태학습장 및 자연친화형 공원도 조성되어 있지만 그저 강바람을 맞으며 전면에 보이는 63빌딩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디너 크루즈를 이용하면 눈부신 한강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으며, 봄날 가벼운 피크닉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더현대 서울

이효리가 티빙 예능 <서울체크인>에서 꽉찬 그곳! 더현대 서울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변화를 담아낸 미래형 플래그십 스토어다. 매장과 동선 구성 등의 혁신적인 스페이스 설계, 개인 간 공감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선사하는 글로벌 콘텐츠 큐레이션, 그리고 미래형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함축해 보여준다. 단순히 쇼핑 공간에 머물지 않고 ‘더 행복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명칭 또한 전통적 쇼핑 공간을 넘어 글로벌 서울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thehyundai_seoul

#63빌딩

#한강

Partners for

THE HYUNDAI SEOUL

기획, 취재, 편집
홍지은

교열
유미영

사진
김민은

디자인
홍은주 김형재 (이예린 도움)

사진 어시스턴트
박성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로풀랫, 더현대 서울

<The Hyundai Seoul Now>의 저작권은 현대백화점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2 by The Hyundai Seoul

<The Hyundai Seoul Now>는 더현대 서울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날 수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현대 서울 1주년을 기념한 디지털 리포트는 보다 다채로운 각각으로 더현대 서울의 면면을 뜯어보고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The Hyundai Seoul Now>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THE HYUNDAI SEOUL

THE
HYUNDAI
SEOUL